

《장정일의 공부》

‘극단의 중용’ 이 보여주는 역(逆)계몽의 언어

글_유성호 문학평론가,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장정일의 공부》 장정일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371쪽 | 값 12,000원

장정일은 세상이 다 아는 우리 시대의 시인이요 소설가요 논객이다. KBS에서 방영한 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의 시집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나 소설 《아담이 눈뜰 때》와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 또한 연전에 시리즈물로 출간한 바 있는 《장정일의 독서일기》는 그의 인문학적 시선을 대중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키면서, 그의 일대 변신을 야심적으로 예고한 바 있다. 거기서 그는 지식인들의 현학적이고 전문적인 독서 방법과 대중들이 취하는 반성 없는 독서 방법을 동시에 넘어서는 성찰적이고 폭 넓은 책의 횡단법을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장정일의 공부》는 앞선 《독서일기》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책이다. 책은 띠

를 둘러 ‘우리 시대의 문화 프로메테우스’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고, 표지에는 ‘장정일의 인문학 부활 프로젝트’ 라는 거창한 부제가 붙어 있다. 반항과 선지(先知)의 상징인 ‘프로메테우스’가 죽어가는 인문학을 ‘부활’ 시킨다는 설정이 책의 외관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장정일은 ‘공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견고한 금기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동안 중립의 처세로 일관해온 지식인들의 허위를 비판하는 프로메테우스를 자임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그는 ‘기계적 중립’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이며 결국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산물인지를 비판한다. 본래 ‘중용’이란 깊은 사유에 바탕을 두고 칼날 위에 서는 것

인데, '양비론의 천사' 들은 무난한 절충을 중용으로 오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흔너머 새삼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우선 내 무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극단으로 가기 위해, 확실하게 편들기 위해, 진짜 중용을 찾기 위해!"(〈머리말〉, 6쪽)라고 말이다. 그 점에서 '중용'은 극단과 편견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양비론이나 양시론이 아니라 확실하게 편들기 위해 택하는 '극단의 중용'을 통해 그는, 우리가 잘 몰랐거나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명쾌하게 해부하고 교정한다. 이 점에서 그는 주류 계몽주의자들의 반대편에서 있는 역(逆)계몽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취한다.

예컨대 그는 '시오니즘'의 실체를 밝혀가면서,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던 신화들을 하나하나 벗겨낸다. 유대인 국가 건설 과정을 매혹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는, 유대인 건국이 "실은 2천 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추방과 박해의 시발점"(215쪽)이라고 갈파한 후, 일종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인 시오니즘의 추악한 과거를 추적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건국 과정에서 보여준 애국심을 우리 애국심 발흥에 활용했던 우리 교육의 한 장면을 또렷이 부조(浮彫)한다. 그는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 아랍 국가들의 전투기가 뜨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공군이 활주로부터 기습 공격했다는 전설과, 조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귀국하기 위해 다투어 공항으로 몰려든다는 이야기들은 어린 학동들의 가슴을 얼마나 뛰게 했는가? 아아, 그때 우리는 모두 시오니스트였다."(229쪽)라고 말한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랬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멀쩡한 원주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박해하며 나라를 세웠을 뿐인데, 그 사건을 마치 유대인이 자기 땅을 되찾은 독립운동인 것처럼 이미지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은 애국심에서 세계 최고이고, 우리나라도 그 유대인의 역사와 비슷한 수난을 겪었으니, 그들을 본받자는 생각을 아무런 회의 없이 내면화했던 것이다.

이처럼 진실은 정반대로 왜곡되어 구성되고 확산될 때가 많다. 장정일은 바로 이러한 오도된 편견에 저항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프로메테우스다. 특별히 촛스키와의 대담집들을 통해,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대목은 장정일의 지식인관(觀)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장정일이 "언론인들 대부분이 시장을 지배하는 다국적기업의 월급쟁이라는 사실, 또 언론계가 이익 충돌의 무

대라는 것을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는 언론은 절대 권력층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318쪽)라고 촛스키의 생각을 요약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권력 재생산에 도구적으로 봉사하는 지식인들의 비극을 읽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류 언론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날선 비난을 마다하지 않지만, 항구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

장정일은 시종 '교양'의 통합성을 이야기하고, 교육의 유비쿼터스를 강조한다. 전문인이랍시고 다른 분야에 눈감으면서 켜 채하는 것은 지식인이 취할 바가 아니며, 깊은 사유를 결여한 채 선언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소위 '왕따'들의 계보를 짜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우리 정치사의 미답(未踏) 영역인 진보정당의 역사를 일군 조봉암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한 상처를 읽고 있고, 모차르트 평전들을 통해 그의 죽음이 당시 문화적 주변부에 행해졌던 "사회적 공모에 의한 암살"(149쪽)이라고 해석해내기도 한다. 그 스스로 주변부 지식인으로서의 피해를 몇 차례 겪은 이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그의 '왕따 계보 짜기'는 경험적 측면에서 보나 '극단의 중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여러 모로 흥미롭고 또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지식계의 고질적 병폐인 양비론과 절충적 태도를 비판하는 그의 시선이, 학벌 지상주의에 얽매어 비주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지식계에 역설의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그의 생각들이 대안적 설득력을 인정받아 주류 지식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극단의 중용'은 그들에게 편견이나 볼멘소리 심지어는 피해 의식의 발로라고 호도될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독서 시장에서 '장정일'이라는 브랜드가 광범위한 매혹을 선사해주는 힘의 원천이다. 그만큼 장정일의 매력은 그의 지적 불온성에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의 오도된 '상식'을 바꾸어가기 위해서라도, 장정일의 생각과 언어가 널리 소통되어 사람들의 '공부'로 이어져가기를 희망해보는 것이다. ■

유성호

연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박사),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문학평론가. 저서로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침묵의 파문) 《한국 시의 과잉과 결핍》 등이 있다.